



만나고 싶었습니다

구 자 옥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농업사학회장

누가 뭐래도 잡초학자다. 잡초학의 대가이다. 具滋
五(66)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그럼에도 “우리농업의
근현대 100년사를 직접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 퇴직
후 가장 큰 보람”라는 의외의 소감을 피력한다. 연구
자로서 또 다른 분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불면불
휴하고 있다. 시인이기도 한 具교수는 중학교시절 우
연히 백일장에 나가 장원함으로써 땀 수 없는 시와의
굵은 인연을 맺었다. 굳이 자신에게 있어 시는 ‘사
치’라며 한껏 낮추지만 지금도 시를 접할 때면 ‘안팎
이 지배를 철’ 하듯 그만의 정신세계에 심취될 만큼
시와 그는 돌일 수 없다. ‘사랑하는 것’ 이상의 그 무
엇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具교수를 그의 연구실에
서 만나보았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신령불이(身齡不二)라고나 할까요. 나이는 못
속이는 게 건강인가 봅니다.

현재 한국농업사학회장으로 재직 중이신데 이곳에서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수시절부터 한문으로 된 우리나라 고농서를
직접 번역해내고 싶었는데, 다행히 농촌진흥청
이 이런 사업을 수행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
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고대농서인 기원전 1
세기의 「범승지서」, 서기 5세기의 「제민요술」
14세기의 「농상집요」를 번역·출간하였습니다.
이들 세권은 우리나라 최초 농서인 「농사직설」
이전에 중국과 우리가 함께 공유(一史兩有)하던

“농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필요 이상의 사회적 대가를 높일 뿐입니다.”

농학기술서인 셈이지요. 이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한국농업사학회의 이사장 및 회장직을 맡게 되었고 매년 국내 학술발표회와 한·중·일 국제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잡초학의 대가로서 30여년간 제초제, 잡초생리생태, 제초제 저항성 잡초 종의 생리생태 등의 연구에 매진하셨는데 학자로서 본인을 평가하신다면?

마치 ‘잡초’ 같은 인간이었고, ‘잡초’ 같은 학자였던 셈입니다. 남들에게 가혹하게 못할 일도 많이 하였겠지만, 어쨌든 쉬지 않고 움직이며 일을 많이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니, 한마디로 평한다면 욕심 많은 ‘일벌레’라 할 수 있을까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시 상정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 제시 및 결론 도출 등 조정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세상일이란 칼날같이 맏고 끊는 일로 꾸려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필요악(必要惡)’이라고까지 불리우는 농약의 사용기술을 실현시켜 가는 과정의 일들이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보게 되는 생명현상이란 결코 정체되어 있는 절대존재의 삶 현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등하며 진화하는 존재의 상대적인 삶 현상, 이를 일컬어 ‘상호부조(相互扶助)의 진화’라 합니다. 이런 결론은 지난해에 내가 번역서로 출간한 피트로 알렉세이비치 크로포트킨(P.A.Kropotkin)의 1902년판 저서명 「Mutual Aids : A

Factor of Evolution」과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의 역할을 기억하기 보다는 모든 과정에서 잘잘못으로 표출하였던 전체 역할과 마음가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 ‘슈퍼 벼’와 ‘제초제 저항성 벼’를 개발하시는 등 식량증산 연구에 매진하셨는데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주신다면?

‘슈퍼 벼’나 ‘제초제 저항성 벼’는 제초제 생리를 연구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테마였던 것입니다. 식량증산이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런 과제는 제초제를 연구하였던 저 같은 사람이 언급할 방안이 아닙니다. 다만, 안정적 식량 확보에는 우선적으로 의욕적인 농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을 보장하는 시장기반 및 생산기술이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최근 다양한 외래잡초 출현과 저항성 잡초로 인해 방제에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제초제 개발 방향을 제시해주신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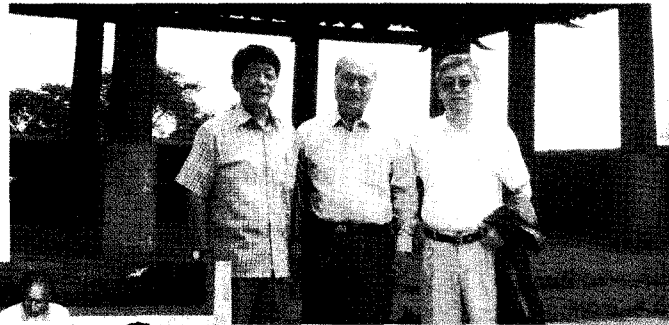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농약의 한 종류로 취급되는 제초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최대의 선택활성을 구비하는 제초제를 개발하더라도 이들을 최소량으로 적용시키는 기술, 그리고 환경내 소실을 완벽하게 유도하는 처방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제초제 처리기술을 수용하는 로봇 같은 것이 개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는 화학물질이 아닌 일종의 활성광스펙트럼 처리기술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 대북지원 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과 함께 방북하였는데 북한농업의 실상과 식량난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두해에 경험하였던 북한농업실상은 남한이든 북한이든 농업자체에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농사라 하면 알맞은 품종과 기반조성 여하 및 비료·농약·농기계 구비 여부가 중요한 것이겠지만, 남북간에는 우선적으로 농자재와 기계·기구, 기반 조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이며 이들 조건이 마련되면 무슨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차이가 궁극적으로 들로 사는 실정의 차이를 유발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로 보입니다.

실제 농약 및 농산물 안전성과는 무관하게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로서 고견을 주신다면?

농약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은 능히 과학적·합리적으로 걱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학적 이해와 합리적 취급 방법에 대한 대응이 없다면 불안감을 막을 수 없습니다. 농약사용의 불가피



1. 망중환(忙中閑)으로 손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구자욱 교수.
2. 2006년 북한이 처음 제정한 식량증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평안남도 속천군 약전농장에서 점심식사 장면.
3. 2007년 7월의 방북단 일행: 평양 대동강변 을밀대에서 좌로부터 김장규 박사, 구자욱 교수, 김형석 한민족복지재단 회장.



국제적으로 식량위기화 가능성 제기 등 백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요구가 적지 않음에도, 오히려 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농법들이 만능인양 확산되고 있습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식량문제는 고도의 생력·생자재 투입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로 값싼 농산물을 최대한 공급함으로써 풀릴 수 있는 반면에 농민의 소득은 값싼 농산물 생산보다 고도의 친환경적 기술투입과 고품질 생산을 통하여 이룩될 수 있어서 양자가 이율배반적 관계에 있습니다. 각종 농법이나 작물보호제의 선택보급 확산도 이들 양자관계에 대한 국가·사회적 정책 선택에 따를 것입니다.

한 특성이나 농약위해성 회피를 위한 대응기술,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농약사용기술의 고도화 정책이 있을 뿐이지요. 막연한 불안감은 필요 이상의 사회적 대가를 높일 뿐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후회들을 위해 특별히 당부의 말씀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면?

죽는 날까지 움직여 일하고 생각하며 실천하는 것만이 진화하는 생물에 가장 걸 맞는 처신이라 생각합니다. 진화는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결과이므로 사람이 움직여 일하는 것은 마치 “진인사대천명(盡人事 待天命)”의 이치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Y